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IN: 신조선가치수 130p, 중고선가치수 114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30p(+1p, WoW), 중고선가치수는 114p(+5p, WoW)를 기록함. 지난 주 삼성중공업은 Evergreen으로부터 15,000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수주함. 인도기한은 2023~25년이라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은 Wanhai로부터 13,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함. 인도기한은 2023년까지라고 보도됨. (Clarksons)

## Evergreen places 20-ship newbuilding order at Samsung in surprise move

삼성중공업이 Evergreen으로부터 15,000TEU급 Scrubber탑재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Evergreen Marine Corp는 공시를 통해 척 당 선가가 1.15~1.30억달러라고 발표함. 인도기한은 2024년 2분기에서 2025년 6월까지라고 보도됨. (TradeWinds)

## Ever Given moves, but not enough to uncork the Suez Canal as queue soars to 327 ships

수에즈운하를 막고 있던 컨테이너선을 인양하려는 노력으로 좌초된 EverGiven호를 약간 움직이게 했으나 배를 다시 띄우는 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보도됨. 운하 통행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됨. 현재 327척의 선박이 운하 입구에서 대기 중이며 운하 내 Great Bitter Lake에는 42척의 선박이 발이 묶여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Noble creates 26-strong drillship fleet with takeover of Idan Ofer's Pacific Drilling

4월까지 Noble Corp, pacific Drilling 간 합병이 이뤄지면서 26척의 Drillship 선대가 형성 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Pacific Drilling은 7척, Noble은 19척의 Drillship을 보유 중이며 선대가치는 16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됨. 그러나 Noble이 61,000GT급 Drillship 2척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기 때문에 총 선대는 24척으로 귀결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글로벌 공급망 대 혼란 우려

전세계 교역량의 12%를 책임지는 핵심 교역로인 수에즈운하 내 선박 좌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석유와 곡물, 자동차까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외신에 따르면, 좌초된 Ever Given호 구조에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두산인프라코어, 초대형 100톤급 굴착기 전세계 동시 출시

두산인프라코어가 제품 라인업 가운데 가장 큰 모델인 100톤급 굴착기 개발을 완료하고, 전 세계 시장에 동시 출시했다고 발표함. 판매 시작과 동시에 몽골, 칠레 등지에서 수주 계약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100톤급 굴착기는 칠레 구리광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몽골에서는 100톤급 굴착기 및 80톤급 굴착기를 각각 2대씩 주문했다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